

- 조사일자 : 2003. 2. 6.
- 조사장소 : 제주시 용담동 양창보 심방댁
- 조사자 : 김현선 외
- 구연자 : 양창보
- 채록(TAPE) · 전사 : 강정식

눈미<sup>1)</sup> 와산(臥山) 양씨애미라는 일월조상(日月祖上)이 잇습니다. 양집이(梁宅에) 아덜은 삼형제(三兄弟), 늦게나마 뜰 흐나 떡 탄생(誕生)을 허난, 이 양씨애미가 아버님은 돌아가고 어머니는 혼자 남았구나.

훈 솔, 두 솔, 일곱 솔이 뒤여가난, 눈미 와산은 갓도 쫓고(짜고) 탕근(宕巾)도 만들고, 영 허영 그런 디(데) 들어가 탕건을 주는(짜는) 디 가도, 아이고 흐는 소리가, 친구(親舊) 벗달앞이도(벗들에게도) “는(넌) 오널(오늘) 가며는 느네 어멍안티(어머니에게) 꼭 욕 들엄직(들을 듯) 허다.” “는 오널 물 질례(길려) 가민(가면) 꼭 허벽을 벌렁직(깨뜨릴 듯) 허다.” 영 허는 것이 그자 곤는(말하는) 양(대로) 똑똑 맞앙(맞아서). 경 허영 열 둘이 넘어가니, 물 질례 강 허벽 떡 팡에 부려두고, 어욱폐기(억새포기)를 들련(들고) 손에 난(놓아) 손에 들련, 그 춤을 추멍(추면서), 소리 허멍, 영 허단 보니, 아이고, 어머님은 떡 별세(別世)를 허여, 장례(葬禮)를 이루와 두고 집안 안네 오란 귀양풀이를 허고 질(길)을 치고 궂을 허는디, 어디 심방이 헤엿느냐. 논흘<sup>2)</sup> 김씨(金氏) 선생님, 그 집이 간 궂을 헤엿구나. 궂을 허는디 안네서 궂은 족은궁이고, 양씨애미 마당에서는 큰궁이 뒷언.

경 허연 하도 양씨애미가 춤을 추단, 궂 무찬(마치고) 심방덜은 집에 가부니(가버리니), 양씨애미는 그디 심방을 뜨라(따라) 김씨 심방네 집이 들어갓구나.

“나도 팔자(八字) 궂게 오랏수다.”

영 허난.

“아이고 아기씨, 큰 어른 댁에 이게 어떻 헌 일입니까. 훈저훈저(어서어서) 돌아갑서. 알면은, 저 어른네 오라방(오라버니) 알며는 나 살지 못합니다.”

“원간 큰오라방이 강단하고 강단허영. 아이고, 나 집이도 돌아가지 못합니다.”

경 허연 나오라 가는 것이,

한라산 테역장오리      물장오리      올라간다.

청대(青竹) ?대 비여(베어) 놓고, 그걸로 떡 질 칠 때 문 좁아난<sup>3)</sup> 문을 만들아 낸, 그 맷섭(맷잎) 하나 난(놓고) 비는(베는) 서능(形容), 땅 파는 서능, 전부 궂을 허멍(하면서), 경 허연 놀암시난, 오라방 삼형제는 ‘아이고 누이동싱(누이동생) 하나 일러부렷구나(잃어버렸구나). 촛아바사(찾아보아야) 허컬(할 걸).’ 영 허연 삼형제가 감감 허는 게, 논흘 심방네 집이 간.

1) 눈미 :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의 고유 이름.

2) 논흘 :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의 고유 이름.

3) 좁아난 : 집어 놓아. ‘질침’을 할 때 맷가지를 둉글게 구부리고 그 양 끝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였다.

“이디 우리 누이동싱 아니 와십디가(왔습디까)?”

영 허난,

“아이고, 이것사 무신 말입니까? 아이고, 큰 어른 댁에 따님아기가 어찌 우리 집안에 올 수가 있입네까(있습니까)?”

영 허난, 그디도 나오란(나와서), 산마다 산골짝마다 쫓는 것이, 테역장오리, 물장오리꺼지 올라간 베려보니(바라보니), 하도 춤만 추고, 질 치는 거 흐고 굿만 허염시난, ‘아이고, 이년 아이 웰로구나.’ 떡 심어다(붙잡아다) 놓고 물 꼬리에 무꺼놓고(묶어놓고) 끊어앗언(끌고는), 물미 와산까지 들어옵니다.

들어오란 방안에 앗저놓고(앉혀놓고) 그냥 문을 다 봉허연 못질 허연 누시(아무리해도) 놀지 못허게 허고, 창구멍을 뚫려놓고(뚫어놓고) 글(그리)로 밥사발이나 주고, 요강이나 들여주고, 영 허멍 살아오는디, 아이고, 그 안네서도 물을 줘도 안 먹고, 하도 목 물라도. 큰오라방이 동싱, 동생 덜보고,

“물 혔 적(모금) 주는 자가 있으면은(있으면) 너희덜 다리몽뎅이 전부 분질러불肯.<sup>4)</sup>”

영 허멍 욕을 헤서,

“밥 혔 적, 물 혔 적 주지 말라.”

영 허연 혔를 이를 근 일궤(이례)를 굽져가니(굽겨가니), 경 허여도 식성제 가운데도 족은오라바님이 마음씨가 너무 좋으난, 형님덜이 익는 틈을 보고, 그릇에 물 짠 간, 아이고 보리낭(보릿대) 요만이 끊언 그걸 영 비어난(베어놓고) 창고망(창구멍)으로 들어주명.

“아이고, 나 동싱 일로(이것으로) 물 뺏아먹으멍(뺏아먹으면서) 목자 누르멍(누르면서) 살라.”

게(그래서) 그 물을 맥이멍(먹이면서) 살다보니, 큰오라방은 어디 갓단(갔다가) 오란(와서),

“저 년 놔두민 아이(아니) 됬다. 저 귀신(鬼神) 미친 거난(것이니) 귀신을 때젠(떼려고) 허민(하면). 개 혔 모리 때려 잡으라.”

개를 잡아 놓고, 그거를 쌍은 물에다 그 문을 올아 누이동싱 머리 꿩뎅일(끝을) 잡아놓고, 딱 마당에 끊어다(끌어다) 난, 그 개고기 쌍은 물에다 막 몸 모욕(沐浴)을 시기곡(시키고) 막 헤여가 난(하여가니),

“아이고, 나 이런 것은 못 먹읍니다.”

못 헤여도 하무리(아무리) 살려줍센 소정(事情)을 혔 덜사(들이야) 큰오라방이 누시 그 말을 아니듣고, 모욕을 시기고 방안네 잡아 쳐노난. 그만 그 뒷날은 양씨애미가 오꽃(그만) 죽어부렀구나.

죽어부니(죽어버리니), 어드레(어디로) 가는고 혔니, 와산 아래 절여리왓이라는디, 그디 들어간,

“아명이나(아무렇게나) 허영 묻엉 설러불라.<sup>5)</sup>”

허여, 길고에다 파네(파서) 딜여놓고, 떼, 테<sup>6)</sup> 혔 주와기 더끈(덮은) 동(듯) 만 동(듯) 허연 내부러놓고, 경 허연,

“어느 놈일찌(놈일지라도) 여기서 우는 사람, 사름이 잇이민(있으면) 나 손에 죽을 것이다.”

허연, 울지도 못허게 허고, 떡 묻어놓고, 삼형제가 오젠(오려고) 허난, 아이고 족은오라방이 허는 말이,

4) 분질러불肯 : 분질러 버리겠다고.

5) 설러불라 : 그만 두어 버려라.

6) 떼 : 잔디. 혹은 잔디를 흙덩이와 함께 떠낸 것. = 테.

“서룬 성님덜랑 훈저(어서) 가그네(가서) 집이 돌아가십서. 나는 이 우로(위로) 강(가서) 물무시  
(마소)나 보곡 허영 가쿠다(가겠습니다).”

영 허연, 보내여두고. 족은오라방이 누이동생 묻은 디 간 떡 들어간 앗안 울멍(울면서) 허는 소리가,

서룬 동싱아	죽엇구나
살때 궂엉	나사시니
지에미라도	보존헐 걸
아이고 아이고	스물 뇌슬 나이 든 해에
구월 스무 나흘날	죽엄구나
서룬 아기가	죽엇구나.

경 허연 막 울멍 시르멍.<sup>7)</sup> 그래도 신체(身體)라도 잘 놓(놓고) 묻어주마.

거기서 잘 파고 동싱을 잘 묻어주언 집안 안네(안에) 오란(와서), 살아가는데 다 입장(入丈) 결혼(結婚)허여 살아도, 그 집이 양집이 상가지는 웨는 일이 하나도 엊고, 나는(낳는) 것마다 깡패, 도독놈 이런 것만 나고, 그래도 족은가지는 그 양씨애미 잘 묻어주고, 물 훈 직이라도 멱여주고 (먹여주고) 영 헌 덕택으로 족은가지는 지금도 부자(富者)로 잘 삽니다.

영 허여 사는 그 양씨애미가 있어낫십네다.

— 濟州市 龍潭洞 男巫 양창보 口誦

현용준·강정식·김현선, 『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연구』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2006, pp.172-174.

7) 시르멍 : '울멍'에 조운(調韻)한 것.